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1일) 2019년 7월 3일 수요일

"문화재청 불교정책 보전주체 무시 심각"

조계종 중앙종회 제215회 임시회… 결의문 채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스님들의 문화재위원 겸직과 관련된 문화재청 제안을 불가피하게 수락할 전망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에 분과별 1명씩 총 8명을 배정하던 스님들을 5명으로 줄이면서 불교계 반발이 커지자 이 같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문화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불통 행정에 불편한 심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위원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단 문화재청 제안을 총무원이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다수의 종회의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다뤄진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유산정책에 대한 논의의 건'에서는 먼저 총무부가 문화재위원 논란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에 종회의원들은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채택, 일명 문화재청의 '불교 홀대'에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불교문화와 연관성이 적거나 없다는 핑계로 일부 분과서 불교계를 배제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이 불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분야로만 한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청의 그릇된 시각과 왜곡된 인식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며 "조계종 중앙종회는 문화재청의 각성을 요구하며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또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보전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관료적 시각과 입장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관심, 애정이 바탕 된 노력과 행동, 그리고 보전 주체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종회는 모든 불자들의 대의기관으로 문화재청의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집행되는지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는 스님 문화재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종단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회의원 B스님은 "문화재청의 결정에서 비롯된 논란이지만 종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항간에 스님 문화재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없도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종헌기관 모독 조사위 구성

중앙종회는 이외에 공석인 종헌개정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인사심의위원인 현민 스님의 사직에 따라 후임으로 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214회 임시회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관련 종법개정안은 총무부가 여론수렴 부족을 이유로 이월을 요청함에 따라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또한 본사주지의 연령 상한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높이는 내용의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찬성 17표,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이는 제16대 중앙종회서도

소통 없는 문화재위원 감축에
조계종 내부 비판 여론 높아
스님 문화재전문가 양성 위한
종단 교육체계 정립도 주문

본사주지 연령상한 개정 부결
종헌특위 위원장엔 심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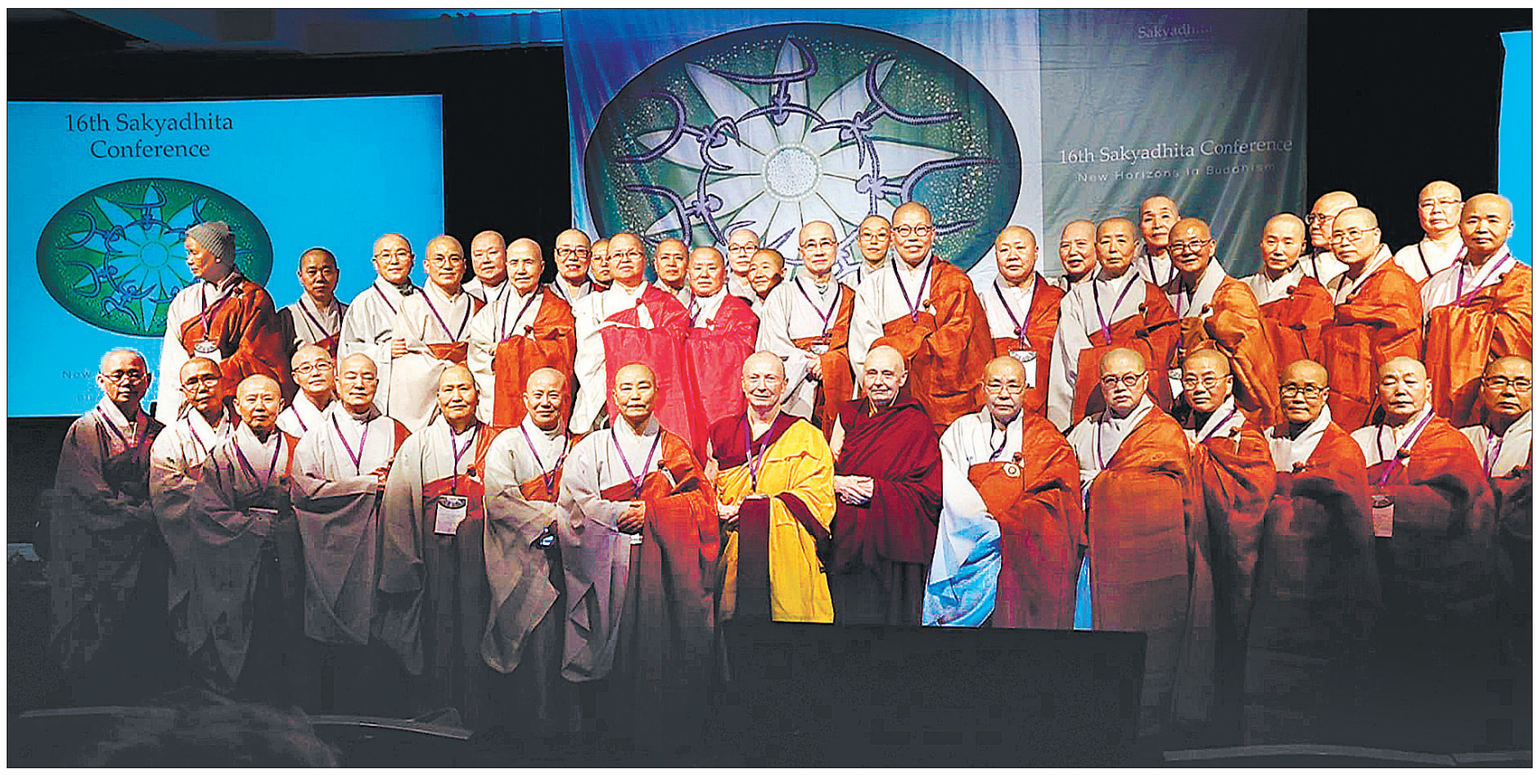
부결된 안건으로, 나이 상한을 높일 시 원로의원이 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지난 4월 30일 입적한 법계위원 종진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된 자광 스님(동국대 이사장) 위촉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소청심사위원 등목 스님의 후임으로는 도륜 스님(봉정사 주지), 종립학교관리위원 성행 스님의 후임으로는 설도 스님(도갑사 주지)이 선출됐다.

한편 회의서는 이례적으로 '종헌기관 모독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사유는 지난 4월 직지사서 열린 중덕 법계산림에서 교수사들이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다는 것.

이에 일부 종회의원들이 찬반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중앙종회는 결국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호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정 스님이 선임됐으며, 위원 선출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세계 여성 불자 '한자리에' 제16차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가 호주 블루마운틴에 위치한 페라몬트 리조트에서 6월 24일 개막했다. 서양권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네팔, 독일, 미국, 호주 등 10개 국가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불교 참가자들은 광명진언과 찬불가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 음악의 콜라보를 선보이며 개막식의 열기를 더했다. 평화와 화해를 향한 불교적인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이번 대회는 6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들로 꾸며졌다. 사진제공= 샤카디타 코리아 · BTN불교TV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제320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학교 발전에 최선"

신임 이사에 우송 스님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에 동국대 이사이자 명예교수인 법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6월 27일 제320회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법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광 스님의 후임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은 7월 21일부터 이사장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는 법산 스님의 이사 만료일인 2020년 2월 17일까지다.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은 "동국대에서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학교가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다. 이 모든 게 현 이사장 자광 스님의 덕화"라면서 "자광 스님과 이사, 총장께서 학교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만큼 이를 잘 이어받아 학교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 교수로서 평생을 봉직한 교육자이자 수행자이다. 1961년 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법산 스님은 196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산 스님은 1971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박사 학위는 〈보조선의 연구〉로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1985년 취득했다. 유학 시절 대한불교 홍법원을 설립해 해외포교를 실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불교학 발전에 매진했으며 동국대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 학내 소임도 두루 맡았다. 불교학자로서 한국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승가학원 이사, 동산반야회 법주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오는 7월 20일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지원 스님의 후임으로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임원 취임과 서울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를 받았으며,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학교에 당부했다.

기타사항에서는 퇴임을 앞둔 이사장 자광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자광 스님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학교 정체성을 살리고 전쟁터 같았던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중점을 두고 소임을 봤다"면서 "이제는 동국대가 옛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로터스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후임 이사장과 총장, 학내 구성원들이 해결할 숙제다.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이기흥 조계종 중신회장, IOC 위원 선출

IOC 134차 총회서 투표로 최종 선출 확정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IOC는 6월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34차 총회에서 이기흥 회장 등을 IOC위원으로 최종 선출했다. 이기흥 회장은 전체 64표 중 기권 2표, 찬성 57표를 획득했다.

이기흥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으로 선출된 최초의 IOC



위원이자, 통산 11번째 IOC 위원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기흥 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로 혁신해 스포츠 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그동안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종단의 여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항상 초발심을 잊지 않고 불자들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조계종 신도대표기구의 수장으로서의 각오도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은이 **혜담 스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서 및 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반야불교 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이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상(無常)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필독서!

진리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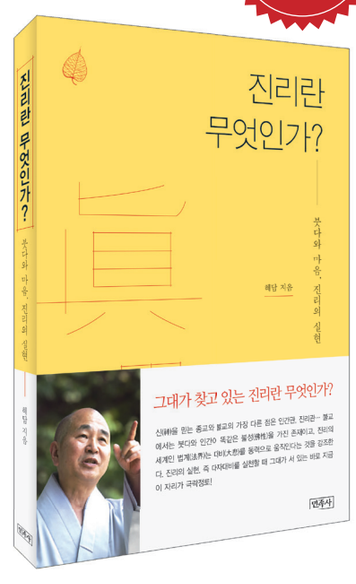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선(禪)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이 책은 반야·공 사상 연구와 수행·교화에 힘써 온 혜담 스님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불교 전체를 망라하여
붓다와 마음, 불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을 주창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

신(神)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 불교에서는 붓다와 인간이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



혜담 지음 ‖ 248쪽 ‖ 13,800원 ‖ 변형신국판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